



주 제:	“영광의 변모”	“사순 제 2 주일”	2008년 2월 17 일
복음 묵상:	마태 17,1-9	창세 12,1-4 7	2 티모 1,8 1-10

사순절은 자신을 희생하고 보속하고,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기입니다.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바치며, 자신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는 이 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라니,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직 영광의 모습을 보기에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기에는 너무 빠른 것이 아닐까요? 원래 주님의 거룩한 변모축일은 8월 6일입니다. 그 때의 장면과 복음 말씀을 우리는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제생활 초기에는 오늘 복음이 사순절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적야 할 십자가도 많고, 매일 매일이 전투 같으니 생존경쟁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런 어려운 세상에 신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인생고에서 생존경쟁에서 지치지 않도록 달랠시키고 격려하기 위해,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너희도 시련과 고통을, 신앙과 기도로 잘 참아내면 이렇게 영광스럽게 승리하리라는 믿음과 희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굶은 날이 있으면 맑은 날이 있고, 슬픈 날이 있으면 기쁜 날이 있듯이, 이 사순절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 부활절에 기쁘게 웃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안동 오성백 신부님 강론 중에서)

수요 기도회	매주 수요일저녁 7시 30	2008년 2월 13일(수요일)
진행: 이 필로메나	음악: 신 미카엘라	참가 가족: 17명
복음 묵상: 마태오.17,5~9	로마서. 12,1~8	

### 나눔

- \* 성서를 읽고 마음에 와 닿은 것은 모두들 예수님을 그냥 예언자 한 인간으로 알았다가. 독생자라는 소리를 듣고 놀람.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를 격상 시켜주심. 그래서 책임도 커짐.
- \* 현세에 동화 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 되어야 함 그러면 산 제물이 되는게 아닌가?
- \* 사순절이 무슨 때인지 생각해보니 너무 너무 많은 할 일이 있음. 감사의 시기, 기쁨의 시기, 생명의 시기, 화해의 시기, 기도의 시기..... 이번 사순 시기에는 못 하던 것을 더 할려고함, (옛날에는 나를 속박 했는데) 화해도 더 하고 오랫동안 소식 없던 사람에게 전화도 하고 ...
- \* 사순절에 자기 자신을 찾는 기간이 아니겠는가, 물론 거기에 맞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
- \* 사순시기를 맞으며 눈감고 조용히 생각해볼 때 정말 신앙인답게 살아왔는지? 길게 생각해봄. 내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생각 때문에 하느님을... 회심을 많이 하게 됨, 잘 살아 온 것 같지 않음, 내 자아를 많이 없애는 작업중 내 머리에서 깨달음이 없으면 성서를 아무리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음. 다른 때와 달리 많은 참회와 나 자신을 정리 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면서 나 자신을 뒤돌아 보고 반성
- \* 이 세상 사람들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하느님 기준으로 보면 모두가 다 불완전, 불완전한 사람이 이웃인 나에게 “너 불완전하다” 라고 했을 때 “네, 알았습니다”하고 그대로 받아 들이는 마음을...
- + 사순절이 막막 하고 예수님께서 사순절에 나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를 생각하다가 지나가는 것 같음, 나의 부족함 등을 다시 한번 꺼내보고 예수님 앞에 내놓는 것으로 대신 합니다.

## 예언 말씀

- +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는 복음을 땅끝까지 담대히 전하여라
- + 마음을 열어 말을 받을 준비를 하여라. 너희가 마음을 열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
- +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기뻐하여라, 기도 하여라, 어떤 처지에서라도 감사 하여라.
- + 떠나지 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불에 태워질것이다 떠나지 마라.  
나도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 + 늘 너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모두 네 것이 아니냐
- +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르라. 나의 말씀 안에 머물러라.  
그 말씀이 너희를 구원 할 것이다.

## 공지사항

1. 2월 19일 찬미 미사. 찰리&베티 부부님 모시고 치유예절 있을 예정
2. 3월 7일 문종원 신부님 특강 있을 예정
3. 2월 27일 필립보 4.4~7.까지 읽어 올것

참석 : 김 빅토리아, 김 맥시밀리언, 정 멜라니아, 이 니콜라스, 이 필로메나, 김 까리따스, 임 요셉, 임 다윗,  
임 요안나, 강 올라라, 김 모니카, 권 요셉, 이 아네스, 이 캐롤린, 전 막달래나, 권 혁운 요한, 박 세실리아,  
< 17명 >

## + 복음 [마태 17,1-9]



옛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게 되었다. ○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 1분 명상

‘오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생각 중에서”



행복에 조건이 하나일 수는 없답니다  
생긴 모양새가 다르면 성격도 다른 법  
가진 것이 적지만 행복을 아는  
당신이면 좋겠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지만  
남과 비교하지 않는 당신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행복에 조건이기 때문이지요

남과 비교할 때 행복은 멀어집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행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